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설 명절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 점검 실시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은 축산물 위생적 취급 및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위생 점검과 함께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 축산물 이력제에 따른 이력번호 미 기재 및 허위 기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75세이상 어르신
경로 목록 · 이미지용지 지원

고창군이 '경로 목록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로목록 및 이미지용지 지원금'은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노인복지 공약사업이다. 군은 올해 군비 12억원을 투입해 75세 이상 노인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한다.

1월 초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노인을 선정했으며,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창사랑상품권 배부를 시작해 설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밖에도 노인복지 정책으로 '바를주치의사제', '임플란트·틀니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 '내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설 전에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다함께 잘사는 시민중심 으뜸정읍”

이학수 정읍시장,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정읍시” 실현 강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정읍시, 다함께 잘사는 시민중심 으뜸정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새해 시정 비전을 시민들에게 전하며 시민중심의 으뜸정읍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주목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시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기업 유치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쉐네파케이와 바이오메이신 등 16개 기업을 유치해 32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



이학수 정읍시장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새해 시정 비전을 시민들에게 전하며 시민중심의 으뜸 정읍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오규제혁신센터와 동물약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과 60개 분야 수상, 약 8억 7800만원의 인센티브 확보라는 성과를 내며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2025년을 '희망경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

원을 확대해 기본소득, 카드수수료 지원 등으로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하며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공공배달업 활성화로 소비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도 주목할 만하다. △정읍천 문화역사 거리 조성 △이양산 목조 전망대 건립 △내장산문화관광 개발 등을 통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지난 20일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공약 완료율 63.8% 달성

부안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군민과의 약속 점검

부안군은 지난 20일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제2기 공약 이행평가단원 25명과 권역별 부안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적극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지구촌 사람이 모이는 문화관광,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목표로 총 4개 분과에서 80개 공약사항 중 변경 심의가 필요한 7건과 추진 중인 42건의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제기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선 8기 5대 비전인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더 나은 농촌 건강안락 자족도시,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 사람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도약의 땅 새만금 배후도시 등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행복up 사업 추진,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 공항비리나항만 연계 크루즈 기항지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선 8기 공약사항 80개 중 51건이 완료되어 공약 완료율은 63.8%를 달성했으며, 나머지 29건 역시 임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역별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군민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 만든다

자연휴양림 · 목재문화체험장 등

고창군이 운곡습지 초입에 산림 휴양과 레포츠 시설 등을 도입해 '산림 휴양테마파크'를 조성한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운곡습지 초입의 아산면 용례리 일원 56ha에 '구름골 자연휴양림 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숲속이영장, 트리하우스, 숲속놀이터,

산책로와 탐방로가 설치되는 고창군 최초의 자연휴양림이다.

특히 고창군은 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산림휴양테마파크'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내년까지 로프·네트·레일을 활용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과 목재문화체험장(목공체험·놀이·전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산림·휴양 트렌드에 부합하

는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고급 목재형 이색 숙박시설로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휴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가 완성되면 운곡탐사트습지, 북분자유원지, 골프존카운티선운,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생태관광시설과 연계한 명품 관광코스가 만들어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설 명절 샘고을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정읍 샘고을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샘고을시장은 오는 28일부터 27일까지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

수산부 주관으로 샘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가 준비한 설맞이 이벤트로 전통시장의 활기를 더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샘고을시장 내 지정된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거나 수산물을 구입한 후 구매 영수증(카드 및 현금영수증만 가능)과 신분증을 지참해 상인회 1층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만이며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환급 혜택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1인 1회씩 적용되며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설 연휴 청소 종합대책 본격 가동

정읍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전후와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4일까지 읍면동별 설맞이 일제청소 및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하고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불편 신고센터(☎063-539-8141~5)'와 '특별기동 청소반'을 운영한다. 또한, 종량제 규격 봉투와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정상 수거한다.

단, 28일과 설 당일인 29일은 휴무일로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휴가 끝나는 31일에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연휴 기간 동안 적체된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고 시가지 집중 청소를 통해 시민들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감량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대형마트와 유통시설에서 판매되는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단속하고 분리배출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설 연휴 기간 쓰레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